C2006-16-3 / 2006. 10

산청군 신활력사업 전담자문 종합보고서

김 홍 상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산청군수 귀하

이 보고서를 귀 기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산청군 신활력 사업 전담자문』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연구책임자: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신활력사업은 참여정부의 새로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으로 지난 30여 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활력이 없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신활력 지역'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이는 낙후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역개발사업이며,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과 달리 집행과정에서 지역 스스로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담 자문위원(패밀리닥터)의 자문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전담자문제도는 신활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특정 지자체의 신활력사업 관련 계획수립과 집행,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경상남도 산청군 신활력사업에 대한 전담자문 활동과 역할수행 실적을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과제 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청군 전담자문위원으로서 현지 방문, 전화나 이메일, 워크샵・교육・회의 참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활동을 하였으며, 자문활동의 내용도 다양하였다.

자문활동을 주요 분야별로 보면, 사업추진체계, 추진방식 등과 관련된 자문 (S/W 중심의 사업 계획 수립 유도와 기획 지원, 관련 담당자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 등과 관련된 자문 (한방사이버박물관, 대표브랜드 개발, 재배단지 조성, 가공산업 육성 등은 고객의 관점에서 사업계획 수립 유도, 연계사업간 시너지 효과 제고 방안 강조 등), 관련 전문기관 추천, 전문가 연계 등과 관련된 자문 (약초재배분야, 유통・마케팅분야,

가공・연구개발분야, 디자인 개발분야, 약초관광화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자체 교육, 워크샵 등과 관련된 자문 (생산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교육 추진,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지역 주민의 자발적 활동에 근거에 외부 위탁 교육 참여 적극 유도 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사업별 자문 활동을 보면, R&D 관련 활동 (연구개발의 방향과 관련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성, 실용화 가능성, 한방약초의 효능, 생산성 등을 제시하여 반영, 연구 과제 선정 과정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사업의 방향에 맞는 과제의 발굴에 참여 등), 한방산업단지 조성 관련 활동 (신활력사업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자문, 주요 기능별 배치 계획에 대한 자문, 한방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의 토지이용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자문 등), 사이버박물관 구축 관련 활동 (전문가 활용과 소비자 중심적 접근 유도, 사이버 박물관 컨텐츠 확충을 위해서는 전산지원담당자 이외에 생산, 유통 등 관련 다양한 전문가와 업무담당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 등), 약초 축제 관련 활동 (행사 직접 참여 및 개선 방향 제시, 약초 축제와 약초 생산 농가간의 연계성 강화, 한방약초산업육성 관련 홍보전략 차원 고려, 한방약초전시 등에 대한 개선 방향 제시, 축제 이후 한약재 및 농・특산물의 지속적 판매망 구축과 판매물량 확보를 위한 생산지원 및 생산자단체 구성에 대한 지원 필요성 강조 등), 간접적 관련 활동 참여 (행정혁신경진대회 등 참여로 신활력사업의 중요성과 사업추진상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회 마련 및 유관 사업 담당 부서의 협력체계 구축 유도, 공동탕제원 유치에 대한 방향 제시 및 민간부문의 자생적 시장 창출의 중요성 강조 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전담자문의 성과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취지 적극 반영 유도, 다양한 사업 관련 담당자 및 사업부서들간의 의사소통 원활 및 협조적 분위기 조성, 구체적 사업 관련 전문가 활용 범위 확대 유도, 사업의 성과 제고 차원에서 농가 참여 활성화 강조 및 해결 방안 모색, 군수 및 관련 담당자간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조정, 타 지역 관

련 자료 수집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신활력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으로 평가해 보면, 신활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년 남짓 되는 상태에서 추진 실적이나 사업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 곤란한 상태이지만, 산청군의 경우 신활력사업(지역활성화, 지역혁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 관련 품목 및 기능성식품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조직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생, 새로운 형태의 민자 유치(공동탕제원 유치) 등의 다양한 성과가 있으며, 지속적인 신활력사업의 추진은 지역활성화와 미래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신활력사업의 성격이 불명확하여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한 점, 전담자문 및 전문가 활용 방법에 대한 미숙,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활력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전담자문제도 운용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 및 관련 업무 담당자의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산청군의 경험으로 보아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사업(친환경한방・약초산업육성사업), 재정경제부의 특구사업(한방산업발전특구 지정), 보건복지부의 한방산업단지조성 특화 계획 등 유사 사업 및 계획의 동시적 추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관련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 사업의 동시 추진이 현장에서 사업의 중복이 아니라 사업 지원 방식의 차이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 시너지 효과 제고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대한형상의학회 공동탕제원 유치 등의 사업은 단순한 민자 유치 차원을 넘어서서 친환경한방・약초산업 육성의 기반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방약초산업의 지속적 발전 토대라 할 수 있는 안정적 약초 판매처 확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산청군이 새로운 한방단지로 발전할 수 있다.

끝으로 신활력사업은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가

능성이 높은 것이며, 사업 추진 방식이 H/W적인 것보다 S/W적인 것이 강조되어 사업의 배경과 취지, 전문가간의 관계 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다른 부서의 담당자들과의 협조체계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장기에 걸쳐 사업 추진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예산구조 등의 관점에서 보면, 신활력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 성과도 먼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선출직 군정 책임자의 관점에서 소홀히 다룰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An Assessment of FD Consultancy for New Vitality Project in Sancheong County

The purpose of the New Vitality Project (NVP), which was implemented in 2005 by the present government (Participatory Govern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was to establish a base for long-term self support for the less developed regions. The NVP was introduced in the course of evaluating the one-sided benefit-providing support policies initiated mostly by the incumbent government. These policies have caused the inefficient running of hackneyed, facility-oriented projects and neglected human resources and regional development without long-term visions, when the less developed regions were getting poorer even if large sums of financial resources were put to correct the situation.

The government introduced Family Doctors (FDs) so that they can provide advices and consulting services on the overall matters related to the NVP. The FD system is considered as a specialized consultant system implemented to achieve the substantiality of NVP. The FD should play many roles such as (1) supporting the local government in establishing the project plan, (2)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main programs of the project, (3) recommending the specialists related to herbs and Korean medicine, (4) amending the action plans of main programs, (5) consulting on establishing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6)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etc.

This report summarizes the results of FD's providing consultation for the NVP of Sancheong county, an underdeveloped region in Gyeongsangnam-do. It embodies the results of a comprehensive evaluation on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and FD's role as well as som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project and the FD system.

Researcher: Hong-Sang Kim
E-mail address: hskim@krei.re.kr

목 차

제1장 신활력사업 및 전담자문의 개요

1. 신활력사업의 구상과 추진 방향 ····· 1
2. 전담자문제도의 개념과 기능 ····· 5
3. 전담자문제도의 운영 방향 ····· 6
4. 전담자문의 범위와 수행방법 ····· 7

제2장 산청군의 지역 현황 및 특성 분석

1. 자연·지리적 현황과 특성 ····· 9
2. 인문·사회적 현황과 특성 ····· 10
3. 경제적 현황과 특성 ····· 10
4. 한방·약초 관련 기존 사업 추진 현황 ····· 11

제3장 산청군 신활력사업의 개요와 추진현황

1. 사업 추진 배경 ····· 15
2. 사업 개요 ····· 17
3. 사업 추진체계 ····· 19
4. 2005년 사업 추진 상황 ····· 20
5. 2006년도 사업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 22

제4장 전담자문활동의 주요 내용

1.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역할 ····· 24
2. 주요 자문 실적 ····· 25
3. 자문 성과 ····· 30

제5장 신활력사업의 종합평가와 과제

1.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 ····· 32
2.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 36
3. 개선 과제와 개선 방향 ····· 39

부록 ····· 45

참고문헌 ····· 64

표 차 례

제2장

표 2- 1. 기존 낙후지역사업과 신활력사업의 비교 ····· 5
표 2- 2. 신활력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 ····· 7
표 2- 3.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의 특징 ····· 7
표 2- 4. 산업융합의 유형 및 사례 ····· 12
표 2- 5. 신활력사업의 유형 구분 및 사례 ····· 14
표 2- 6. 신활력사업 관련 조직(지역혁신협의회 외) 인적 구성 ····· 15
표 2- 7. 신활력사업비 투자가 적절한 부문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 19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대상지 ····· 6
그림 2- 2. 확정된 신활력지역 ····· 8
그림 2- 3. 신활력지역의 비전 ····· 10
그림 2- 4. 신활력사업의 실천모델 ····· 13
그림 2- 5. 신활력사업의 총괄 추진 주체 ····· 16
그림 2- 6. 신활력사업 참여 행정부서 수 ····· 17
그림 2- 7. 민간주도 사업 개수별 시·군 분포 ····· 17
그림 2- 8. 시·군 평균 신활력사업비 재원조달 출처 ····· 18
그림 2- 9. 신활력사업비 총액 대비 지방비 및 민자 비율별 시·군 분포 ··· 19
그림 2-10. 시·군 평균 '05～'07년 부문별 신활력사업비 투자 내역 ····· 20
그림 2-11. 신활력사업 추진시 개선할 점(중복 응답) ····· 21

제3장

그림 3- 1. 장흥군의 위치 ····· 23
그림 3- 2. 장흥군 신활력사업 추진체계도 ····· 27
그림 3- 3. 호박축제의 모습 ····· 28
그림 3- 4. 토요시장의 모습 ····· 28

제 1 장

신활력사업 및 전담자문의 개요[1]

1. 신활력사업의 구상과 추진 방향

1.1. 신활력사업의 구상과 의의

○ 신활력사업은 참여정부의 새로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으로 지난 30여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활력이 없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신활력 지역”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낙후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되찾기 위한 신활력사업 추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역개발사업이며,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과 달리 집행과정에서 지역 스스로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1] 제1장의 내용은 정명채(2006)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활력사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 세미나 자료)와 김창길(2006)의 『춤건강고장 영양군 신활력사업 FD 컨설팅 종합보고서』, 모성은(2006)의 “패밀리닥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신활력사업 패밀리닥터(FD)·담당공무원 합동 워크숍 자료』. 행정자치부) 내용을 원용하여 정리함.

○ 낙후지역 신활력 요소 개발의 의의
- 낙후지역의 발전 잠재력 발굴 : 풍부한 생명환경 에너지, 도시민의 농촌 회귀 증가, 생태·환경 웰빙시대 도래, 교통통신기술발달 등
- 도시와 농촌이 대립적 ·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農都相生 관계로 전환
- 지방의 창의와 자율성에 기반한 상향식 사업: 수동적, 의존적 발전이 아니라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혁신역량을 강화
-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산업이 융합된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전환

1.2. 추진과정상의 특징

○ 낙후지역개발에 있어서는 인적개발, 과학기술, 산업생산, 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지역혁신이 관건임. 신활력사업의 핵심은 산·학·관·연의 바람직한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를 구축하는데 있음.
- 즉,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문화·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내·외 전문가 및 기관들로 실정에 맞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임.

○ 신활력사업은 '지역개발' 정책에 있어서 '지역주도' 개발방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며,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여 추진토록하고 있음.
- 신활력사업은 지역 스스로 고민하고 자생력을 만들어 움직이게 하는 사업으로 지역혁신과 관련 물리적 변화가 아닌 의식의 변화를 통해 내재화하고 지속성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됨.
- 신활력사업은 지역내 대학·기업·연구소·NGO·언론 등과 같은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총 집결하여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임.

○ 사업계획은 가급적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과 차별성이 있는 신규사업으로 하되, 기존사업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큰 경우 신규 사업과 연계 추진 가능함. 이 경우 사업 간의 효율적 연계방안 · 사업내용 차별화 방안· 중복투자방지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함.

- S/W 개발 중심으로 하고 H/W 사업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함. 기존의 낙후사업에서는 인프라구축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H/W사업에 중점이었는데, 신활력사업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낙후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탈피 할 수 있는 S/W 사업에 중점을 둠. 신활력사업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하나로 지역주민 · 대학 · 기업 · 연구소 등과 같은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하기 위함임. 하드웨어사업에는 설비투자, 시설물 설치 등을 들 수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워크숍, 포럼, 연구회 등), 생산 및 소득기반조성(농산물가격변동 손실 차액보전, 시장조사, 창업지원, 생산자재지원 등), 마케팅사업(홍보 · 광고, 브랜드개발, 이벤트 행사 등), 향토자원개발(연구개발 등) 등을 들 수 있음.

○ 신활력사업의 특성상 전국 70개 지역을 중앙정부가 직접 감독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전담자문제도 도입을 고려하게 됨.

- 중앙에 신활력사업 자문위원회(30인)가 구성되었으나, 이들 인력으로 전국의 70개 지역을 모두 자문하고 지도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방화 · 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 자체의 전담자문제도 도입

1.3. 신활력사업 관련 주요 정책과제

○ 신활력사업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의 낙후 지역에 해당되어 자체적으로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음.

○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발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적 혁신역량 강화[2]

○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 농어업에 제조업, 관광, 유통 등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

○ 農都相生을 위한 5都2村 및 1社1村운동의 활성화
-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화
- 기업 또는 회사와 농촌마을과의 결연

○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향상
-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교육, 찾아가는 서비스 등

○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SOC 확충 (기존 낙후지역정책 최대 활용)
- 대도시권과의 교통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충

1.4.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사업 유형과 사례

○ 신활력사업 계획은 내용별로 분류하면, 향토자원개발(농특산물), 지역문화관광개발, 지역이미지 마케팅, 교육 · 인재 육성, 생명·건강산업 육성, 해양수산자원 개발 등으로 구분됨 (표 1-1).
- 향토자원 개발(농특산물) 분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총 70개 사례 중의 절반인 35건임.
- 산청군 신활력사업인 친환경한방・약초산업육성사업의 경우 “생명・건강산업 육성” 분야에 속함.

---

[2]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의 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송미령 외(2005)를 참조하기 바람.

표 1-1. 70개 신활력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유형 및 사례

유형	건수	사 례
향토자원 개발(농특산물)	35건	• 나비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함평군) • 공룡나라 웰빙농업(고성군)
지역문화관광 개발	12건	• 친환경 유기농 그린투어리즘(화천군) •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영월군)
지역이미지 마케팅	7건	• HAPPY 700 브랜드 강화(평창군) • 생태건강산촌만들기 지역마케팅(진안군)
교육 · 인재 육성	5건	• 외국어교육 특구조성(창녕군) • 국제화교육(거창군)
생명·건강산업 육성	6건	•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정선군) • 인상·약초를 통한 오감체험형 건강사업(금산군) • 친환경 한방·약초산업육성사업(산청군)
해양수산자원 개발	5건	• 해양생물산업 경쟁력 강화(완도군) • 블루투어리즘 및 특산품 브랜드화(울릉군)

2. 전담자문제도의 개념과 기능

2.1. 개념

○ 신활력사업은 민・관・학・연의 혁신주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통해 지역혁신을 모색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담 자문위원인 패밀리닥터(Family Doctor, FD)의 자문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전담자문(패밀리닥터)제도는 신활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특정 지자체의 신활력사업 관련 계획수립, 집행, RIS구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컨설팅을 제공함.

- 국가균현발전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전담자문(패밀리닥터)의 개념을 보

면, 신활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지자체에 일정기간 동안 전담자문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동 사업관련 계획수립, 집행, RIS 구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2.2. 기능

○ 패밀리닥터(FD)는 신활력사업의 목표(Goal)에 맞게 RIS 구축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다음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이 설정됨.

- 혁신리더(Actor)의 발굴 및 지원
- 선도사업(Project)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문
- 구성원간 네트워킹·협력촉진 및 의견수렴(System 구축)
- 기타 사업수행 관련 정보제공, 교육, 자문실시

○ 패밀리닥터(FD)는 신활력사업 계획수립부터 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됨 (모성은 2006, 67).

3. 전담자문제도의 운영 방향

○ 70개 신활력지역 전체 시·군에 지정 · 운영하며, 1개 신활력 시·군당 전담 FD 1인을 선정함.

- 신활력사업 자문위원회 민간전문가(30인) 및 동 사업관련 현지전문가를 중심으로 시·군의 희망에 따라 선정
- FD는 시장·군수가 1년을 임기로 하는『○○시(군) 신활력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되 연임 가능

○ 시·군의 자체 판단에 따라 FD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 형성·운영

- FD의 전문성 한계 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사업 관련 다양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4. 전담자문의 범위와 수행방법

4.1. 전담자문의 범위

○ 전담자문의 범위는 앞서 지적되었듯이 매우 광범위하며, 신활력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집행 ·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사업계획의 수정 보완, 평가, 추진체계 구축, 관련 전문가 구성, 교육 등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FD의 자문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됨.
- RIS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학습, 토론, 교육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시 애로 및 문제해결, 추진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신활력사업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검토,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신활력사업 추진과정에 필요한 전문가 추천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한편 행정자치부 등의 지침에 따라 신활력사업지역인 산청군의 전담자문 계약서상 명시된 전담자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신활력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활력 세부사업별 관계전문가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
- 신활력사업 추진과정상 애로 및 문제 해결, 개선책에 관한 사항
- FD협의회 활동등을 통해 신활력사업 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에 관한사항

- 사업의 자문지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에 관한 사항
- 기타 산청군이 요청하는 신활력사업 관련 사항 등

4.2. 전담자문의 수행방법

○ 전담자문의 수행 방법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신활력사업 전담자문 계약 내용 등에 의하면, 평상시에 유선 및 서면을 통해 수시 자문하고, 월 2회 이상 현지를 방문하여 관계관과 대면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행사 참여를 통한 자문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전국FD협의회의 워크숍 등에서 전담자문에 참여하는 FD들간의 공유된 자문 활동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운영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참석을 통한 사업 내용 검토 및 평가와 조정방안 제시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 우수 사례 및 벤치마킹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정보 제공, 신활력 사업 추진에 참고할 만한 국내외 선진사례 등 소개
- 신활력사업 관계자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 세부 사업별 실시계획에 대한 검토 및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담당자, 지방자치단체장, 이해당사자 등간의 갈등이 존재할 경우 객관적인 제3자적 관점에서 조정하거나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제 2 장

산청군의 지역 현황 및 특성 분석

1. 자연·지리적 현황과 특성

○ 경남의 서북부 산간지대, 내륙지형의 영향을 받아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 특성을 지니고, 산악지역은 기온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큼.

- 연평균 기온은 12.8℃이며, 최고 극기온은 35.4℃, 최저 극기온은 -11.7℃를 기록함.
- 산간지역의 안개는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평균 강수량은 1,534.6㎜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6-9월에 대부분 집중됨.

○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한방 자원 보유, 산약초의 보고로 약초 재배의 최적지로 알려짐.

- 지리산권으로 다양한 종류의 약초가 자생하고 있어 조선시대부터 약초와 한방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짐.

○ 대전통영고속도로 개설로 수도권지역 접근성 개선되고, 최근 친환경, 웰빙의 이미지와 맞는 지리산 문화권에 속함.

2. 인문·사회적 현황과 특성

○ 산청군 인구는 2002년 현재 약 3만8.700여명으로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편이며, 세대당 인구수가 점점 줄어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최근 5년간 농가인구 감소 폭은 연평균 약 5% 수준으로 높은 편임.
- 농가인구 중 60세미만층은 전체적으로 감소, 60세 이상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노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대부분 농업을 기반을 한 1차 산업에 종사하며, 농업작물 중 식량작물과 특용작물의 특화도가 높음.
- 채소류와 과수의 특화도는 비교적 낮은 편임.
- 비농업부문 종사자 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 비중이 가장 높고, 일반 제조업이 미흡한 상태임.

○ 산청군 총 면적 중 지리산국립공원이 11.8%이고, 전체의 78.6%가 임야로 최근 강조되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웰빙 토산품 개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3. 경제적 현황과 특성

○ 2002년 현재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2만5,700여명으로 총인구대비 66.4%, 1차산업 인구 비중은 47.5%로 전형적인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보임.

○ 농가가구수는 7,800여 가구로 총가구수의 51.9%, 농가인구 비중은 47.4%

인데, 향후 젊은층의 이농현상 등으로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임.

○ 농경지면적은 총면적의 13.0%, 호당경지면적은 1.31ha에 불과함.
- 영농기계화에 추세에 따라 농업용기계의 보유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당 경영규모가 영세하며 필지당 면적이 적고 분산되어 있는 등 생산기반이 미흡함.

○ 수박, 양파, 딸기 등 채소류의 생산면적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산지대의 특성을 살린 채소류의 생산면적 및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약용작물은 2004년 약 800여 농가에서 200여ha에 이르는 면적에 재배하고 있는데, 한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 지리산한방약초축제 등 지속적인 한방약초산업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약용식물 재배농가 및 재배면적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있는 추세임.

4. 한방·약초 관련 기존 사업 추진 현황

○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
- 관광지 지정 : 2001. 6. 22.
-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 2001. 6. 28.
- 기반조성 완료 : 2004. 6. 24.
- 사업비 : 9,000백만원 (문화관광부 지원)
- 시설부지 분양 완료 : 25필지 (46,997 ㎡)

○ 지리산한방약초축제 개최

- 2001년부터 매년 5월 개최, 약 50여만명의 방문 (외국인 2,000여명 참여)
- 주요행사 : 9개 분야 54개 단위 행사 (37개 단체 참석)
- 2006년 (행사기간 5.4 - 5.8) 관람객수 : 676천명 (추정)
- 한방과 약초의 본고장 및 청정 관광 산청군의 이미지 구축 효과, 축제 이후 약초 판매 증가와 약초 재배 분위기 확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다양한 효과 발생

※ 신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홍보기반 마련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 2006년 지리산한방약초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청군 자체 분석 자료인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람.

○ 한방산업발전특구 지정
- 재정경제부 2004. 11 신청, 2005. 4. 25. 지정
- 위치 : 산청읍 정곡리 755번지 외 3필지(28,025㎡)
- 사업 :
  • 약초연구소 및 한약재 개발교육장 설치로 체계적인 약초연구 개발
    · 대학연구소, 제약회사 등과 연계 약초재배, 특성 등 연구
    · 지역군민 대상 자생약초, 약용수의 약효, 재배방법 등 교육
  • 약초 전시장 및 약초 판매장 설치 • 운영
    · 지리산 자생약초의 성장과정 및 약효의 우수성을 전시하여 관광객 유치
    · 지역내 약초재배, 채취농가로부터 수집, 판매,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
  • 약초 시범재배단지 및 약용수 묘포장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성 우량약초 생산, 공급 및 재배기반 조성 확대
    · 지리산 자생 약용수 재배시범단지 조성 및 농가지원 보급
- 예산 : 49억원 (국비 15, 지방비 34)
  • 05년도 : 14억원 (국비 5, 지방비 9)
  • 06년도 : 14억원 (국비 5, 지방비 9)
  • 07년도 : 21억원 (국비 5, 지방비 16)
- 특례 : 옥외광고물, 농지이용임대차 허용

• 특구지역내 지역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특구법 제23조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특례 → 행정자치부)

• 산약초 시범재배단지 및 묘포장 집적화 등이 가능하도록 특구지역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사용대 허용 (특구법 제26조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사용대 허가특례 → 농림부)

※ 산청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특례조례 제정(2006.3.30)

○ 지리산권 한방산업단지 특화계획

-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 (2004년 추진, 2006년 신청, 2007년 지정 계획)
  • 한방산업단지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신청서 제출(보건복지부):2003. 8
  • 산청한방산업단지조성 특화계획 조사용역 실시(2003.10), 용역조사 완료(2004. 5)
  • 과천종합청사 지리산권 한방산업단지조성 특화계획보고:2004. 1
  •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지리산권 한방산업단지조성 지정 건의: 2004.3
  • 한방산업단지관련 조사용역결과 주민설명회 개최:2004. 6
- 사업대상: 산청군 일원
  • 지리산권(삼장면, 시천면), 왕산권(생초면, 금서면), 집현산권(신안면, 생비량면), 웅석산권(산청읍, 단성면), 황매산권(차황면, 신등면) 등 5개 권역 중심
- 사업내용
  • 한약재 생산,가공 유통분야 9개 분야
  • 한방의료 서비스분야(2개 분야): 347억원
  • 한방문화·관광분야(5개 분야): 939억원
  • 지리산권 한방 클러스터 조성분야: 9억

○ 권역별 약초재배단지 조성 지원

- 기간 : 2004.1 - 2004. 6
- 사업비 : 760만원
- 규모 : 171농가 42.8ha

○ 약초연구단지 조성
- 기간 : 2004. 1 -2004. 12
- 사업비 : 442백만원
- 규모 : 1.2ha (초종별 전시포 및 증식포 조성)

○ 약초연구소 및 가공단지 조성
- 약초연구소 및 가공단지 설치 계획 수립 : 2004. 7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04. 12
- 2005년 예산 확보 : 900백만원(군비)

○ 한방 약전거리 조성
- 상설약전시장 조성 계획 수립 : 2004. 3.
- 예산 확보 : 700백만원

○ 한방약초 로지스틱스 조성
- 산청소도읍육성계획 수립 (한방약초 로지스틱스 계획 포함) : 2004. 1 - 2004. 4
- 산청소도읍육성계획 군의회 승인 : 2004. 4.
- 산청소도읍육성사업 2004년 대상사업으로 선정 : 2004. 6 (3년간 8,5백만원 국비·도비 지원)

제 3 장

산청군 신활력사업의 개요와 추진현황

1. 사업 추진 배경

○ 산청군은 전체 면적의 약 79%가 임야인 전형적인 산간 농촌지역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웅석봉, 황매산, 왕산 등 우수한 산악형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방약초산업 육성의 최적지이며, 한방약초산업 육성을 위한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외부 연구 용역 형태가 아닌 군청 직원(실무자)과 주민의 공동 노력으로 신활력사업 참여 계획을 수립
- 군민아이디어 공모 실시,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전문가풀 구성 및 자문 등 다양한 노력

○ 그러나 약초재배기술 연구기관이나 학교가 전문한 상태로 약초에 대한 체계적인 약효·재배·가공기술 등이 없어 농가에서 기술적 측면과 부가가치 증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한의학 관련 대학과 연계한 한방 관련 연구 개발과 약초생산 기반조성, 가공·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소득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매우 강하게 제기됨.

○ 위와 같은 산청의 자연적,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산청군 친환경 한방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 및 방향을 정립함.

- 21C 산청 비전(Vision)의 구체적 실천 ⇒ 새천년 한방문화를 선도하는 “한방산업휴양낙원” 산청 건설
- 한의학과 한방요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한방산업의 급속한 성장
- 지리산을 주변으로 수려한 산악자원을 활용하여 한방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경쟁력을 충분히 보유
- 기존 농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이 절실함.

○ 산청군 자체에서 신활력사업(친환경한방・약초산업육성사업) 계획 수립시 제시한 SWOT 분석

강점 (Strength) ▪ 허준과 류의태가 활동한 지역명성 ▪ 양질의 약초 보고인 지리산 중심부에 위치 ▪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한방약초축제 등 한방 인프라 양호 ▪ 산청군의 강력한 한방산업 육성 의지	**기회 (Opportunity)** ▪ 세계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한방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교통 접근성 양호 ▪ 한의대 및 연구기관 유치 가능성 높고 한방산업에 대한 군민 적극 동참
약점 (Weakness) ▪ 약초재배농가 및 생산면적 부족 ▪ 약초재배기술 및 우량묘목 보급 취약 ▪ 관련 사업체 및 유통시설 부족 ▪ 지방재정 열악으로 한방관련산업 예산 부족	**위협 (Threat)** ▪ 국내 지자체간 한방산업관련 사업 참여 ▪ 중국 한역재의 수입에 따른 가격경쟁력약화 ▪ 한・양방간의 협력 부족으로 신세대의 관심 저조

2.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리산을 비롯한 우수한 산악형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청군의 특성과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한방약초산업 육성으로 새천년 한방문화를 선도하는 “한방산업휴양낙원” 산청 건설

○ 사업기간 : 2005 - 2007

○ 총사업비 : 총 17,250백만원
- 총사업비의 43.5%가 신활력사업 관련 국비 지원

○ 사업내용과 사업별 투자계획
- 사업내용 : 4개 분야 8개 단위사업
- 지방비(군비) 부담 부분은 대부분 약초 관련 기초조사, 홍보 지원, 민자 유치 사업 관련 부지매입, 약초재배 및 증식포 조성, 한방약초축제지원 등 관련 사업비임.
- 민자 유치 부분은 한방약초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약전거리(상가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비임.

○ 사업계획시 제시되거나 및 그 이후 강조된 파급 및 기대효과
- 국산 한약재 수급 안정 및 고품질, 규격 한약재 생산기반 조성
- 약초재배 농가의 기술력 배양으로 생산 경쟁력 확보
- 지리산 산청약초의 품질 우수성 인증 획득으로 농가소득 증대
- 한방 관련 현안 사업 유치 용이
- 양질의 양초보고인 지리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유휴 농지 및 산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림업 경쟁력 제고
- 한방과 연계된 웰빙·휴양 관광산업 활성화

<신활력사업 주요 내용 및 사업별 투자계획>

분 야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내용	3개년(05-07) 투자계획 (백만원)		
			계	신활력	기타 (지방비,민자)
4개 분야	8개 단위사업		17,250	7,500	9,750
지리산 한방약초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RIS구축)	약초연구개발 전담팀 운영	R&D연구개발(생약, 식품등) 기술지도 및 자료조사 지리적표시제, 친환경약인증	1,400	1,000	400 (군비)
	기술혁신 역량 강화	전문가초빙 기술교육 선진농장체험(20개작목반) 약초재배성공, 실패 사례집 및 약초도감 책자 발간 산청군지역리더 육성 지역인재 발굴 pool 구성	1,500	1,100	400 (군비)
	소 계		2,900	2,100	800
우량 약초묘목 증식 기술개발	약초재배 기반조성	재배 및 증식포 조성(50종 10ha) 체험교육장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초종별 선도농가 육성(10종 100농가)	3,200	1,900	1,300
	소 계		3,200	1,900	1,300
약초체험장 개발 및 약초 관련 산업 민자유치	한방약전거리 조성	약전거리 기반조성 약재상, 한방식당 운영 체험프로그램 개발	2,300	600	1,700 (군, 국비, 민자)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작목반별 1차 가공시설 설치 지원	한방요쿠르트 개발 독활염장가공 등 작목반 10개소 행정절차, 세제 지원 기술개발 인센티브 농가와의 계약재배 지원	5,100	1,100	4,000 (민자)
	소 계		7,400	1,700	5,700
지리산 한방약초 대표 브랜드 개발 및 유통·홍보 활성화	대표 브랜드 개발 및 규격 포장재 지원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규격포장재 지원(3종정도)	1,200	900	300 (군비)
	인터넷 쇼핑물 운영 및 유통 시설확충	사이버한방 테마파크 및한방장터 기행 집하장, 저장시설 확충 판로개척 행사지원 홍보	1,200	900	300 (군비)
	한방약초축제 육성	한방체험 프로그램 운용 한방음식, 움료개발 및 약초판매 지원	1,350		1,350 (군비)
	소 계		3,750	1,800	1,950

3.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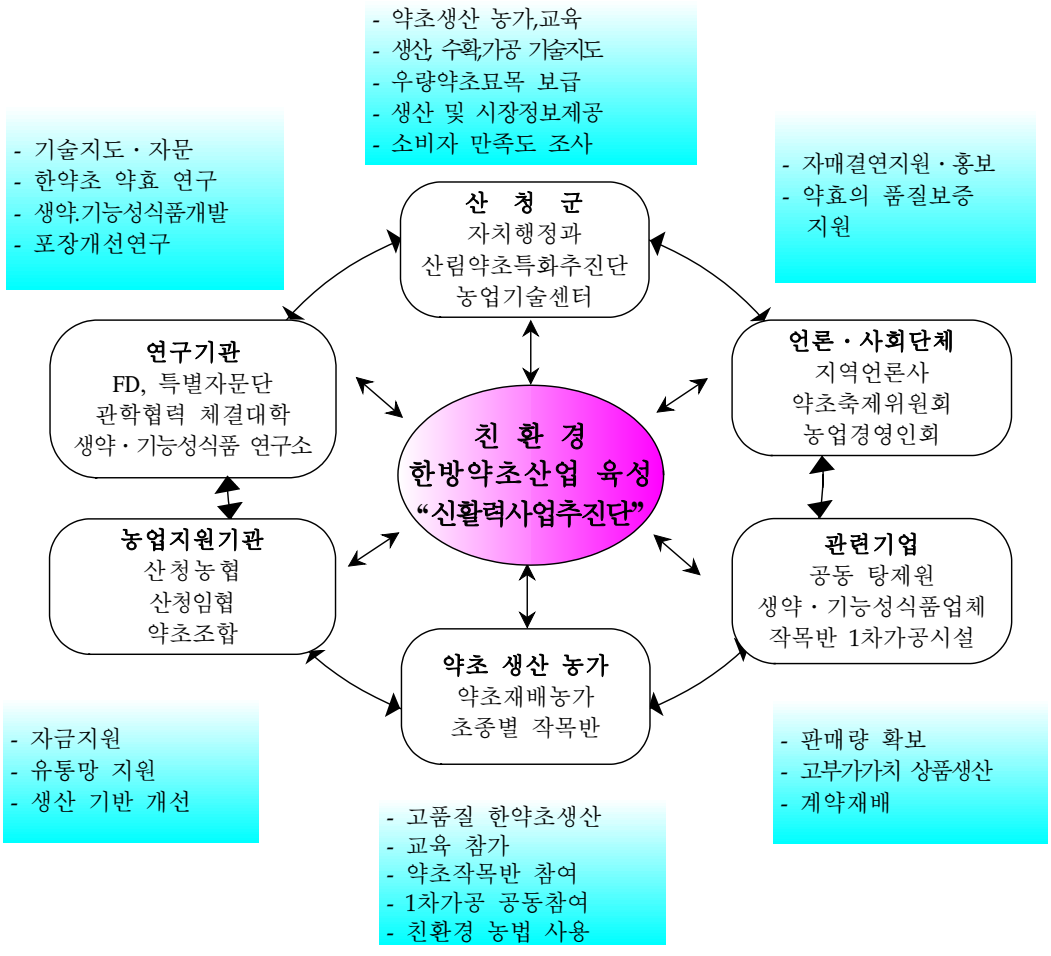
○ 사업추진총괄 : 신활력사업추진단 운영 (자치행정과 혁신분권담당)

○ 사업추진부서 : 4개과 6개 담당 (추진초기 3개과 5개 담당로 시작)

○ 혁신체계 구축

- 참여자간 네트워크 형성

<System(혁신체계) - 참여자(지역리더)간 네트워크 형성>



○ 자문・컨설팅
- 전담자문(FD), 특별자문단, 군의회, 지역혁신협의회 등 다양함.
- 특별자문단은 전담자문과 달리 친환경 한방약초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는데, 주요 담당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약초재배분야 (2명) : 권역별 약초선정 및 재배에 따른 자문
  • 유통・마케팅분야 (2명) : 약초유통 • 마케팅 및 사이버 홍보 등 자문
  • 가공・연구개발분야 (3명) : 약초가공 및 연구개발, 기술혁신역량 강화, 연구개발사업
  • 디자인 개발분야 (1명) : 브랜드개발 및 포장디자인개발 자문
  • 약초관광화분야 (1명) : 친환경약초재배의 관광상품화 전략 및 홍보

○ 협조・참여기관단체
- 관학협력대학, 산청농협, 산청임협, 약초조합, 약초연구회, 품목별 약초작목반, 농업경영인회 약초축제위원회 등

4. 2005년 사업 추진 상황

○ 친환경한방약초산업육성사업 신활력사업으로 선정
- 사업비 : 2,835백만원(인센티브 3억 포함) -(06년 25억. 07년 25억)
- 사업내용 : 4개 분야 8개 단위사업
- 사업승인 : 국가균형발전위+행정자치부(2005.4.30)
- 사업계획수립 우수기관선정 인센티브 3억

○ 신활력사업 추진체계 구축
- 신활력사업 추진부서 (혁신분권, 유통지원, 약초생산, 한방지원, 정보통신, 농업기술센터 등)
- 신활력사업추진단 구성・운영 : 11명 (단장 : 기획감사실장)

(4개 팀 운영 : RIS운영팀, 생산및기반조성팀, 연구개발팀, 홍보마케팅팀)
- 신활력사업 전담자문위원(FD) 위촉 : 1명 (위촉 2005. 7, 용역계약 2005. 10)
- 신활력사업 특별자문단 구성・운영 : 5개 분야 전문가 9명
- 전문가 특별채용 : 계약직 6급 1명 (박사학위소지자)

○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지정(2005. 4. 26 재정경제부)
- 한방약초산업육성이라는 신활력사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 가능

○ 대한형상의학회 공동탕제원 유치 : 70개 한의원 참여(민자 20억)
- 협약서 체결 : 2005. 12. 7
- 공동탕재원 유치는 신활력사업의 생산이 확대될 산청군 한방약초의 수요처 확대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산청군에서 부지 매입과 기반 조성 지원

○ 권역별 약초재배 대단지조성 : 4개소
- 작약 : 생초면 평촌리/ 27농가/ 22,000평/ 100백만원
- 홍화 : 신안면 하정리(하천부지이용)/ 7,000평/ 19백만원
- 도라지 외 1종 : 단성면 소남리/ 19농가/ 28,300평/ 116백만원
- 독활 외 4종 : 삼장면 홍계리/ 10농가 15,500평 / 59백만원

○ 약용식물 재배단지(소규모) 조성 : 13개소/20,500평/120백만원
- 약초재배 선도농가 육성 : 11읍면 100호 지정

○ 지리산약초 R&D연구개발 : 3개과제/150백만원
- 2005년 : 한방바이오팩 개발외 2건
- 2006년 : 한방음료 개발외 4건

○ 가공산업 육성 : 4개소/ 630백만원

- 삼장면 홍계리 독활가공시설 외 3개소

○ 한방 사이버박물관 구축 : 200백만원
- 2006년 9월 완료 예정 (2005년도 사업비 이월)

○ 기타
- 한방산업단지(금서 창주일원) 조성부지 매입 : 146필지/4,225백만원(군비 30억)
- 고품질 약초재배 기술교육 : 10회/950명
- 선진농장체험 벤치마킹 : 7회/450명
-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설립 창립총회 : 2006. 1. 7 (조합원 700여명)
-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성공적 개최 : 9개분야/50여 단위행사/65만명 방문

※ 2005년 신활력사업추진실적 평가시 우수군으로 선정 : 인센티브 4억

5. 2006년도 사업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 2006년 중점 추진방향
- S/W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가시적 성과 거양
- 농가의 적정소득 보장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산청 지리산약초의 고품질, 고부가가치화로 농가소득 증대
- 생산・집하・저장・가공・유통 구조의 체계화로 경쟁력 확보
- 약초재배 대단지, 약초마을 등 관광산업과 연계방안 강구

○ 승인된 2006년 사업 개요(2006. 4. 3 행자부 승인)
- 사업비 : 7,615백만원(신활력 2,500 지방비 2,515 민자 2,600)
- 사업내용 : 4개 분야 8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
- 2005년 사업과 연계하되, 세부사업을 좀 더 체계화하여 재분류함.

- 지방비 부담부분은 우량약초묘목 증식포 조성 관련 부지 매입비용과 지리산약초 기초 자료 조사 비용과 홍보 지원사업비 및 한방약초축제 지원 사업비임.
- 민자 유치의 주요 부분은 사청 약초 저장 및 가공시설 건립 관련 사업비,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에서 농가 자부담, 유통·가공시설 관련 작목반 자부담 등과 관련된 사업비임.

<2006년도 사업 추진 계획과 추진현황>

분 야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계	신활력	지방비	민 자
4개 분야	8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	7,615	2,500	2,515	2,600
지리산 한방약초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RIS구축)	약초연구개발 전담팀 운영	지리산약초 기초 자료조사	50	15	35	0
		R&D연구개발	200	200	0	0
	기술혁신역량 강화	신활력사업 총괄운영 및 자문·홍보 지원	83	53	30	0
		고품질 약초재배기술교육	65	65	0	0
		선진농장체험	30	30	0	0
		지역리더 육성	50	50	0	0
한방약초생산 기반 조성사업	한방산업단지 조성(금서창주 일원)	산청약초 저장 및 가공시설 기본용역 및 시행(민자유치)	2,593	593	0	2,000
		우량 약초묘목 증식포 조성	2,500	500	2,000	0
	약초재배기반 조성사업 (읍면별)	산약초 대단지 시범 조성(10ha)	144	144	0	0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선도농가 육성)	400	200	0	200
약초체험장 개발 및 약초작목반 육성	한방약초 체험장 조성	지리산약초 체험단지 조성 (산악권역별 조성)	150	150	0	0
	작목반별 유통 가공시설 지원	유통 및 가공시설 지원	300	150	0	150
지리산 한방약초 대표 브랜드 개발및유통·홍보 활성화	대표 브랜드 개발 및 규격 포장재 지원	대표 브랜드 개발	100	100	0	0
		규격포장재 디자인개발 및 제작지원	450	250	0	200
	한방 사이버 박물관 구축	한방 사이버박물관 운영 (2005년도 사업비로 추진)	0	0	0	0
	한방약초축제 육성	제6회 한방약초축제 개최	500	0	450	50

제 4 장

전담자문활동의 주요 내용

1.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역할

1.1. 산청군과의 계약서상의 FD의 역할

○ 신활력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활력 세부사업별 관계전문가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

○ 신활력사업 추진과정상 애로 및 문제 해결, 개선책에 관한 사항

○ FD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신활력사업 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자문지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에 관한 사항

○ 기타 산청군이 요청하는 신활력사업 관련 사항 등

1.2. 산청군 신활력사업 추진과정에서 FD로서의 역할 (FD 자체 진단)

○ 사업계획 보완 및 2006년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전문가 자문

○ 신활력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워크숍, 패밀리닥터협의회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신활력사업의 추진과정상의 애로 사항 전달 및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해당 사례지역 사업 추진의 방향 제시

○ 업무담당자에게 다양한 전문가와 유사사례를 소개해주는 중개자

○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연구 과제 발굴에 대한 자문 및 연구자 선정 과정에 참여

○ 군수 및 관련 담당자간의 이견 조정자

○ 생산, 유통,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참여 유도

○ 사업추진체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자문
- 지역농업인 참여 확대, 지역리더 육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역향토약초자원가공업체의 적극적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 제시

○ 사업담당자의 애로 청취 및 성과 제고를 위한 격려자 등

○ 신활력과 간접적 관련을 갖는 사업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참여 및 사업간의 연계 강화 필요성 제시
- 행정혁신 경진대회 참여 및 대상자 심사 참여 등으로 유관 사업과 신활력사업간의 연계 강화

2. 주요 자문 실적

2.1. 전반적인 자문 실적 개요

○ 자문활동은 초창기 신활력사업의 취지대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주요 내용 보완 등에 대한 자문이 주를 이루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체 사업 추진체계만이 아니라 개별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보완, 추진

체계, 추진과정에서 사업내용 보완, 사업자(연구개발자) 선정방식 결정 등의 자문을 함.

○ 자문・컨설팅 내용별 실적과 주요자문사항

구 분	실 적	주요 자문 사항
가. 현지 방문	11회	- 사업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 - 사업운영추진협의회 등의 역할에 대한 자문 - S/W 사업 중심 추진의 의의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기획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자문 - 타 지역 전문가 활용 현황 소개 - 워크샵 등에서 논의된 사업 관련 내용 소개 - 특구사업, 클러스터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추진 방안 제시
나. 전화/이메일	25회	- 사업 설계, 개별 사업의 추진 방법 관련 자문 - 관련 전문가 활용 방법 안내 -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수시 자문
다. 워크샵, 교육, 회의등 참석	4회	- 다양한 형태의 워크샵에 참여하여 정보 교류
라. 사업 자문단 회의	4회	- 개별 사업 관련 연구개발, 단지 조성 관련 기본 계획 수립시 전문가로사 자문 참여
마. 기 타	수시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내 관련부서, 상급간의 사업 관련 이해 조정 협조 등

* FD 위촉 (2005. 7. 12 - 2006. 7. 11)
* FD 전담자문용역 계약 (2005. 10. 24 - 2006. 10. 23)

2.2. 주요 분야별 자문 실적

○ 사업추진체계, 추진방식 등과 관련된 주요 자문 내용

- S/W 중심의 사업 계획 수립 유도와 구체적 내용 기획 지원
- 산청군 공무원 중 사업 직・간접 관련 담당자간의 협력체계 구축
- 생산자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 특구사업 등 타 관련사업과의 연계 강화
- 성과, 투자효율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 등과 관련된 주요 자문 내용
- 사이버박물관, 대표브랜드 개발, 재배단지 조성, 가공산업 육성 등의 경우 고객의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 산청군의 농산물생산, 문화, 관광/레저, 한방약초산업 등이 하나의 컨셉으로 통합되도록 계획 수립을 유도
- 2차년도(2006년)는 구체적 사업성과 발현을 고려한 계획 수립 강조
- 연계사업간 시너지 효과 제고 방안 강조

○ 관련 전문기관 추천, 전문가 연계 등과 관련된 주요 자문 내용
- 산청군은 담당공무원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사업을 구상・기획하여 추진하는 특수한 지역으로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비정기적이지만 수시 자문을 받고 있음.
-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전담자문위원(패밀리닥터)의 전공영역이 경제학, 농촌개발 관련 분야로서 한방약초와 관련된 기술적인 분야, 특히 약초재배분야, 유통・마케팅분야, 가공・연구개발분야, 디자인 개발분야, 약초관광화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로 특별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전문가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노력함.
-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관련 업계 전문가 자문을 구할 경우 이들의 자문내용을 적극 수용하도록 권하며, 특히 공동탕제원 유치 등 수익사업의 안정기반 조성을 위한 지자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자체 교육, 워크샵 등과 관련된 주요 자문 내용
- 생산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교육이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보고회의, 포럼이 운영된 바 있으며, 이들 활동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지역 주민의 자발적 활동에 근거에 외부 위탁 교육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예산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의회의 지원 노력을 요구 (군의회 의원들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여 해당 사업 담당

자의 업무에 대한 간접 지원을 요구)

2.3. 주요 사업별 자문 실적

○ R&D 관련 활동

- 연구개발의 방향과 관련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성, 실용화 가능성, 한방약초의 효능, 생산성 등을 제시하여 반영함.

※ 2006년 연구과제 모집 분야

- 약초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용기술
- 산청약초를 이용하여 기능성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실용기술
-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기술과제
- 과제수행 후 특허출원이 가능한 기술과제

- 연구 과제 선정 과정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사업의 방향에 맞는 과제의 발굴에 기여함.

※ 2005년 연구과제

- 한약재를 이용한 한방약주 제조 및 숙성용 용기 개발
- 한약재를 이용한 한방팩의 개발
- 지리산 오가피 발효주 개발 및 생리활성 연구

※ 2006년 연구과제

- 지리산약초를 이용한 한방발효음료 개발 (백출, 산사, 엄나무, 오가피, 우슬, 계피→한방감주, 한방 젖산발효 음료, 한방 유기산 음료 개발)
- 산청약초를 이용한 기능성장류개발 및 산업화 (겨우살이, 적하수오, 지황, 도라지→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감식초, 장아찌)
- 독활의 간 손상 보호효능을 활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간기능개선 기능식품개발)
- 천마 및 작약을 활용한 인지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화장품 개발 (인지기능개선제품, 주름개선화장품)
- 두충의 생리활성효과를 이용한 웰빙 음료개발 및 제품화 (고혈압 예

방음료, 스트레스 완화 및 두뇌 기억 증진음료, 아토피 및 알레르기 증상 개선 화장수 개발)

○ 한방산업단지 조성 관련 활동
- 신활력사업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자문
- 한방산업단지내에 입지할 주요 기능별 배치 계획에 대한 자문
-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약전거리 조성사업, 한방약초휴양관광단지조성 등 간의 연계 개발의 중요성 강조
- 한방축제공간 겸용 방안 검토
- 민간자본 참여 중요성 강조
- 전체 공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 한방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의 토지이용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자문

○ 사이버박물관 구축 관련 활동
- 전문가 활용과 소비자 중심적 접근 유도
- 누구나 알기 쉽도록 다양한 약초 사진 및 정보 제공에 노력하도록 유도
- 사이버 박물관 컨텐츠 확충을 위해서는 전산지원담당자 이외에 생산, 유통 등 관련 다양한 전문가와 업무담당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
- 특이사항 : 2006년 산청군내 행정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 참조

○ 약초 축제 관련 활동
- 행사 직접 참여 및 개선 방향 제시
- 약초 축제와 약초 생산 농가간의 연계성, 한방약초산업육성 관련 홍보전략, 한방약초전시 등에 대한 개선 방향 제시
- 단순 전시형태의 축제가 아니라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유도
- 축제 이후 한약재 및 농·특산물의 지속적 판매망 구축과 판매물량 확보

를 위한 생산지원 및 생산자단체 구성에 대한 지원 필요성 강조

○ 관련 간접적 관련 활동 참여
- 행정혁신경진대회 등 참여로 신활력사업의 중요성과 사업추진상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회 마련 및 유관 사업 담당 부서의 협력체계 구축 유도
- 공동탕제원 유치에 대한 방향 제시 및 민간부문의 자생적 시장 창출의 중요성 강조

3. 자문 성과

○ 아래는 전담자문(FD) 스스로 평가한 개략적인 자문 성과를 신활력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것과 간접적인 산청군 사업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임.

○ 전반적인 자문 성과
-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취지 적극 반영 유도
- 다양한 사업 관련 담당자 및 사업부서들간의 의사소통 원활
- 구체적 사업 관련 전문가 활용 범위 확대
- 사업의 성과 제고 차원에서 농가 참여 활성화 강조 및 해결 방안 모색
- 군수 및 관련 담당자간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조정
- 합리적인 연구개발자 선정 지원
- 한방사이버박물관 구축 사례의 경영혁신 우수사례 선정
- 타 지역 관련 자료 수집 제공

○ 산청군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의 성과
-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의 설계와 추진으로 성과 제고
- 자치행정과, 생산지원과, 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등 다양한 사업 관련 담

당자간의 협조적 분위기 조성 : 신활력사업담당자가 타 부서 상급자의 도움을 적극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논거 제공 등

-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 자문과 사업의 내실화 : 전문가 활용이 방식과 전문가의 유형 구분 및 직접적 소개
-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 기반 체계 구축 관련 자문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조성 : 농업인 참여의 중요성과 관련 사례 제시
- 다양한 유사 사례 정보 제공으로 사업 내실화와 담당자 전문성 제고

제 5 장

신활력사업의 종합평가와 과제

1.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

○ 신활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년 남짓 되는 상태에서 추진 실적이나 사업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 곤란한 상태이지만, 산청군의 경우 신활력사업(지역활성화, 지역혁신)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 관련 품목 및 기능성식품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조직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생, 새로운 형태의 민자 유치(공동탕제원 유치) 등의 다양한 성과가 있으며, 지속적인 신활력사업의 추진은 지역활성화와 미래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됨.

- 한방산업발전특구 지정 및 특례조례 제정(재정경제부), 지리산권한방산업단지 특화 계획 추진(보건복지부) 등 신활력사업과 별개의 유사 관련 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청군의 경우 사업비 구성의 측면에서 보아 신활력사업의 사업비 비중은 낮으나 사업내용인 친환경한방·약초산업 육성 부분은 산청군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인식되어 여러 측면에서 공동 관심사로

되어 있어 신활력사업으로 계획된 핵심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다양한 성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됨.

- 신활력사업과 관련하여 4개 과 6개 담당이 참여하여 관련부서간의 협력체제 구축, 농업기술센터와 군청 농정 담당 부서간의 협력체제 강화로 현장성 있는 농가 지원 체계 구축 기반 조성 등 지자체 농정 차원의 적극적 지원, 신활력사업 내용 지원 및 추진 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신활력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더불어 한방약초재배에 대한 참여 농가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우수 기술 도입을 위한 생산농가들의 교육 참여 확대, 권역별 약초재배단지 조성 및 주요 약초별 생산자의 조직화 경향 등 신활력사업지역(낙후지역) 활성화 주체인 농업인의 참여 확대 기반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신활력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대한형상의학회 공동탕제원 유치 등 한방·약초산업과 관련된 지속적인 시장 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 노력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을 구축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한방·약초와 관련된 지역 향토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 협동 연구 및 공동 사업(가공사업 등) 추진 사례 확대도 중요함.
- 한방약초 관련 종합 브랜드 개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현판 건립 및 문화 축제, 대규모 약초 생산단지조성에 따른 볼거리 제공(예 : 생초면 대규모 작약(함박꽃)재배단지 조성으로 우수한 관광자원 개발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기를 마련(한방·약초 관련 산청군 종합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 인식 및 실천력 제고)하는 등 다양한 관련 사업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효과를 제고시키는 노력이 돋보임.

○ 산청군의 신활력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신활력사업의 범위와 사업비의 한계,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할 경우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려는 시도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 신활력사업지역로서 산청군의 경우 자체 산업기반, 재정 여건이 매우 열

악한 낙후 지역으로서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 특히 농업인의 노령화 등으로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 새로운 성장 동력의 생성 및 유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꾸준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과거 다른 사업의 경험에서처럼 사업의 중단, 사업추진내용의 큰 변화, 사업형태의 전환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는 아니 됨. 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지원, 외부 자본 유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의 경우 많은 시간이 요구됨.

-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단지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관련 사업의 재원 확보,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 등 여러 측면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힘든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사업 추진실적 평가 등에 얽매이게 되면 무리한 사업 추진을 부추길 수 있음. 예컨대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중앙부서와의 협의 절차, 토지소유자들과의 합의과정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점검·평가가 지나치게 단년도 사업비 기준의 평가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며 중장기적 비전하에 꾸준한 사업 추진이 중요함.
- 또한 산청군의 경우 지역 향토 한방약초를 이용한 소규모의 자생적 가공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자생적인 업체들이 대학,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 연계된 기술개발사업이 중요함. 이러한 연구개발사업과 사업 확장 및 시장 개척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구체적인 성과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기술개발의 산업화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조기에 사업 성과 실현을 요구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음. 지나치게 실현된 성과 위주의 평가 작업을 삼갈 필요가 있음.
- 친환경한방약초산업육성사업은 다양한 기획을 통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구사업, 임업클러스터사업 등과 잘 연계시켜 전국적으로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꾸준한 사업추진이 절실함.

○ 중앙정부의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유사 사업을 지나치게 중복 지원사업으로 이해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평가하는 경향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행정자치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신활력사업이나 재정경제부의 '특구'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지리산권 한방산업단지 특화 계획 등 여타 사업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사업간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신활력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S/W사업만을 강조하여 관련 사업간의 연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곤란함.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갈래의 사업비가 통합되어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비의 합리적 배분이 중요한데, S/W사업을 강조하는 신활력사업이 관련 전체 사업의 유연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함. 사업의 성과를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S/W사업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적용은 곤란함.
- 산청군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산청군의 경우 신활력사업의 구상과 계획 등을 외부 전문가에 의해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하지 않고 산청군 업무 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협조 가능한 전문가의 자문의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스스로 추진하였음. 따라서 사업 담당자 스스로 지역 혁신 노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중앙부서(행정자치부)의 평가라는 절차, 특히 각 부서별 추진하는 사업 단위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방식이 오히려 사업의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됨. 점검·평가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행정 절차이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과정이 부분적으로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점도 부정하기 힘들다는 점이 자문활동 과정에서 드러남. 신활력사업 지역으로서 산청군은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으로서 중앙부처(행정자치부 등)의 점검·평가 절차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추가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절차에 대해 얽매일 수밖에 없음.

2.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 문제점 진단의 관점과 전제적 논의

- 사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의 구체적 성과 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진단과 해결과제 도출은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사업의 전반적인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사례지구에서의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FD로서 달관적인 평가 결과를 제시함.
-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지구에서의 사업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며, 사업담당자나 해당 지자체가 부딪힐 수 있는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제시함.
- 신활력사업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과제 도출, 사례지구(산청군) 차원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 방식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 등으로 중심으로 제시함.

○ 신활력사업의 성격이 명확하게 정립되지도 않았고, 지자체(산청군)의 담당자들도 사업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함.

- 2005년도 초창기 신활력사업은 상반기 사업 확정 통보 및 사업예산 편성 등의 절차이행으로 실질적 사업추진이 하반기에나 가능해졌으며, 2006년도 사업도 4월에야 승인되어 실질적 사업기간이 매우 짧은 상태임.
- 짧은 사업기간으로 2005년 10월 평가시 사업예산집행 실적에 의한 평가를 대비하여 무리하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시행착오도 발생되었음(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 등).
- 사업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S/W 사업 위주의 사업 계획 수립과 H/W사업비 집행 자제 등의 지침이 강조되어 사업비 집행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나타남. 낙후지역의 오지개발사업과는 달리 S/W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교육비 및 용역비 등에 신활력사업비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관계로 초창기 사

업시행에 많은 애로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시기가 늦어졌음.

- 관련된 다른 H/W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S/W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일방적 S/W사업 추진은 1회성 사업에 머물게 되는 위험이 발생하기도 함.
- 여전히 사업의 성격, 사업비 집행의 원칙 등이 불명확한 상태로 이해됨.

○ 새로운 사업 추진체계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전담자문(FD)제도를 도입했으며, FD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성격이 모호한 상태임. 지자체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어 FD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으로 받고 있어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도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로 있으며, 여러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자문과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

- 신활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단, 자문단 등 전문가 인재풀 구성을 강조하여 FD 위촉 등이 거의 강제되는 상황이었지만, 지자체 사업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초기에는 FD의 역할과 위상이 불명확한 상태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 문제로 된 적도 있음.
- 지자체 담당자의 입장에서 FD가 일반 전문가(특별자문단 등)에 비해 신활력사업의 성격이나 평가체계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로 인식하여 적극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지만, FD 자문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는 산청군만이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문제임.
- FD는 전체 사업의 계획 수립, 사업의 방향 설정, 전문가풀 구성 지원, 사업 관련 제도 개선 요구 등 사업추진내용과 관련된 자문만이 아니라 군수(군정책임자)와 신활력사업 담당자간의 의견 대립시 중재자적 역할도 중요하였음. 산청군의 경우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군수가 신활력사업비의 일부를 직접 관련이 적은 다른 부분에 투입하기 희망하는 경우 직접 문제제기하기 힘든 담당직원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함.

- 월 2회 이상 방문 자문을 한다는 등의 지침이 있지만, FD의 여타 업무로 월 1회 정도 방문할 수 있는 실정임. FD가 비록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문가로서 다른 업무가 과다하거나 원거리 거주라는 제약으로 인해 방문자문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신활력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구성 운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FD는 사업의 취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전문가이지만 한방・약초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는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해야 함. 그리고 FD와 사업추진담당자들이 이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여 전문가 활용상에도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됨. 한방・약초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기술적인 과제와 연계되어 오히려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등이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FD의 한계를 보완해야 하는 실정임.

○ R&D사업 과제 및 사업자 선정 등 지자체 스스로 처음 시도하는 업무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 중앙부서의 사업추진주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 토착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개발을 강조하면서 “벤처 정신이 필요하다. 70개 신활력사업 지역 모두 성공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몇 곳이라도 성공사례가 나오면 성공적 사업추진이라 본다. 적극적으로 성장 동력을 찾아내자”식으로 설득하지만, 현지 담당자의 관점에서는 사업 하나하나 선정과정에서 성공가능성을 매우 강조하며 매우 엄격한 심사와 보수적인 접근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남.
- 약초작목반에서는 약초재배기반시설 및 가공산업육성에 따른 시설물 건립 등에 많은 투자를 요구하지만, 향후 판매 대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분위기임.
- 또한 이미 수출까지 하는 일부 한방약초가공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관련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임.

- 그렇다고 전문성이 있는 FD나 특별 자문단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것은 또 다른 과제라는 생각이 듦. 이러한 상태에서 S/W사업, H/W사업의 구분 논란은 본질적인 것이 되지 않음.

3. 개선 과제와 개선 방향

3.1. 사업 성격의 구체화와 안정적 추진 기반 조성

○ 신활력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신활력사업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추진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S/W사업의 범위(정의)가 모호한 점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성격과 S/W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산청군과 같은 신활력사업 추진 지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S/W 중심의 신활력사업 추진만으로는 사업 성과 제고가 미흡할 수 있음.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H/W 사업과 S/W사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 예컨대 한방약전거리 조성의 경우도 산업단지로서 H/W적인 것과 다양한 S/W적인 것이 결합되어야 가능함.

○ 신활력사업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는 문제는 지자체 내의 여러 부서가의 합리적 업무 추진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줌. 따라서 사업의 위상과 성격을 좀더 구체화하고, 신활력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3.2. 유사 사업의 종합적 고려와 협력적 추진

○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사업(친환경한방・약초산업육성사업), 재정경제부의

특구사업(한방산업발전특구 지정), 보건복지부의 한방산업단지조성 특화계획 등 유사 사업 및 계획의 동시적 추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관련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앞서 지적했듯이 현실적으로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예산 지원 부서)의 사업평가시 유사 사업의 중복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됨.
-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중복 투자의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각각의 사업별(지원부서별) 지원내용이 다름. 예컨대 '약전거리 조성'이라는 동일 항목이라 해도 부지 조성 지원만 하는 사업, 민자 유치를 통해 품목별 주요 가게 설치를 위한 민자 유치 사업, 약전거리 공간을 통한 축제 행사 지원 사업 등 사업별 지원 내용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특구사업, 신활력사업, 한방산업단지특화사업 등에 약전거리 조성이 중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업비의 중복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적절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요컨대 다양한 차원의 유사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평가 노력이 요구됨.

○ 앞으로는 S/W사업의 경험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 특히 R&D사업, 지리산 한방약초 사이버박물관, 대표브랜드 개발 등은 기본적으로 유사 사업의 종합적 고려와 여러 부서의 협력적 노력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하에 여러 업무 담당자간의 협조와 전문가 네트워크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됨.

- 예컨대 지리산 한방약초 사이버박물관 구축은 전산업무 담당자의 업무영역보다 판매・유통, 생산, 광관・문화, 역사 관련 업무담당자와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경우임. 따라서 다양한 사업 내용을 지니고 있는 신활력사업의 개별 업무 분담자들이 수시로 만나 협의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함.

- 중앙부서 차원의 업무 협의도 중요하지만, 신활력사업의 경우 지역 자체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산청군 스스로 조직 문화 개선, 공무원 상호간의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됨.

3.3. 민자 유치에 대한 적극적 노력과 이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 부여

○ 한방약초산업의 지속적 발전 토대라 할 수 있는 안정적 약초 판매처 확보라는 차원에서 대한형상의학회 공동탕제원 유치 등의 사업은 단순한 민자 유치 차원을 넘어서서 친환경한방·약초산업 육성의 기반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

-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산청군이 새로운 한방단지로 발전할 수 있음. 장기 치료 목적의 체류, 한방체험관광 등을 유도할 수 있음.
- 공동탕제원 유치는 친환경한방·약초산업육성사업이라는 신활력사업의 핵심사업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산청군의 한방약초생산기반으로는 공동탕제원의 안정적 원료 공급에 크게 미흡한 수준으로 많은 생산 농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그러나 산청군의 경우 10여년전 두충나무 식재를 권하였다가 가격 폭락으로 농가 피해 발생 경험이 있어 농가들의 불신이 여전히 강함. 생산농가들의 신뢰 기반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공동탕제원이 투자자(대한형상의학회)의 입장에서 안정적 수익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지원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에 대한 적극적 평가가 필요함.

3.4. 업무 담당자의 안정적 근무 기반 조성

○ 신활력사업이라는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가능

성이 높은 것이며, 사업 추진 방식이 H/W적인 것보다 S/W적인 것이 강조되어 사업의 배경과 취지, 전문가간의 관계 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다른 부서의 담당자들과의 협조체계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장기에 걸쳐 추진해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체 예산구조 등의 관점에서 보면, 신활력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성과도 먼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선출직 군정 책임자의 관점에서 소홀히 다룰 수 있음.

○ 산청군의 경우 친환경한방・약초산업육성사업(신활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담당자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도 상대적으로 나은 상태이면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3.5. 업무 추진 체계 보완

○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RIS운영팀(자치행정과)의 역할보다 사업부서인 생산및기반조성팀(한방약초특화추진단), 연구개발팀(농업기술과), 홍보마케팅팀(농업축산과) 등의 역할이 중요해짐. 따라서 신활력사업은 자치행정과 업무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다른 부서와의 유기적 업무 협조체제 구축이 요구됨.

- 생산및기반조성팀(한방약초특화추진단), 연구개발팀(농업기술과), 홍보마케팅팀(농업축산과)의 경우 신활력사업이 아닌 별도의 업무가 많아 안정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지 못하는 실정임.
- 신활력사업의 업무 추진 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부서간의 역할 분담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지적했듯이 신활력사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부 사업 내용이 장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수립과 실천이 필요함.

- 전체 사업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을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신활력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될 것이라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산청군의 경우 친환경 한방・약초산업육성사업은 중앙정부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핵심 사업이므로 중앙부서의 사업부서가 달라지더라도 중장기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6. 신활력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어 신활력사업의 가장 주요한 특성으로 인식되는 ‘지역주도의 개발 방식’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이를 위한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노력이 요구됨.

- 산청군의 경우 애초 신활력사업의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별 사업별 이해당사자들이 차별화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 마을별 지역별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주민 참여 유도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또한 신활력사업의 경우 ‘H/W적인 것보다 S/W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및 사업추진 업무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구됨.

- 예컨대 단순한 지리산권 약초의 채취 수준이 아니라 시장 수요에 맞도록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개발과 마케팅 능력 제고 등을 위한 차원에서 농업인의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음.

- R&D사업, 지리산 한방약초 사이버박물관, 대표브랜드 개발 등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업무추진담당자의 업무 능력에 따라 사업 성과가 크게 달라지고, 전문가들의 활용 수준도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담당자의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함.

○ FD 등 전문가 자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전담자문위원의 권한 강화 차원보다 지자체의 해당 사업 담당자가 사업을 통해 자기만족이 생기도록 해야 함. 사업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산청군의 경험으로 보아 해당 담당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애착을 가질 경우 자문도 적극적으로 유도되고 자문의 실효성과 활용도도 높아질 것임.
- 자문 활성화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 차원에서도 사업담당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부 록 1.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행사결과 보고

제6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행사결과 보고[3]

□ 기　　간 : 2006. 5. 4(목) ~ 5. 8(월)【5일간】
□ 장　　소 : 산청공설운동장 일원
□ 주　　최 : 산청군, 산청군농협
□ 주　　관 : 지리산한방약초축제위원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경상남도, 한국관광공사, 관련기관·단체
□ 주요행사 : 12개 분야 82개 행사
□ 참여단체 : 70개 단체
□ 소요예산 : 495백만원(군비 300, 도비 60, 농협 50, 기타 85)

총 평

○ 한방휴양 관광산업과 약초재배가 지역산업의 유일한 희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한 금년 제6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는 전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지난해보다 더욱 알차고 다양한 체험

[3] 산청군 자체 분석 자료임.

행사를 확대하여 12개 분야에 8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들로부터『한방과 약초』라는 소재를 활용한 특색있는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82개소의 약초, 농•특산물, 한방향토음식점을 운영하여 행사기간중 총 474백만원의 직접소득을 거두는 성과를 이루는 등 일반 축제와는 차별성있는 생산적인 축제로서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한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제6회 축제 개최에 최소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3억원의 예산만 확보된 상태에서 축제 개최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축제가 임박한 2. 21일 추경 또는 신활력 사업비 등을 확보 계획으로 축제의 일정과 규모를 확정하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를 탈피하기 위하여 직접 느끼고 만져보고, 맛보는 체험위주의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전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기 위해 행사 준비부터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나 관련 부서에서의 창의적인 노력의 결실로 전년에 비해 발전된 행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1. 축제 홍보 및 관람객 유치

○ KBS 1TV 생방송 뉴스, KBS '6시 내고향'을 유치하는 등 TV를 통한 홍보와 MBC 라디오 AM•FM, 전국 농협점포, 스포츠 한국을 비롯한 중앙·지방신문, 잡지, 전문지, 대도시 와이드광고판, 각종 홍보물과 조형물을 조기 제작 설치하여 홍보하였고,

○ 특히 제1회 대한민국축제박람회, 고성공룡세계엑스포, 도민체육대회 등 8회에 걸친 계기홍보를 실시 내실있는 홍보 활동으로 관람객의 수가 67만 6천여명으로서 지난해보다 행사기간을 2일간 단축하고 기간중 1일간의 강우속에서도 관람객들의 열기가 높아 지난해의 65만명(7일간)과 비교해 볼 때 국민들의 관심과 인지도가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음.

2. 한방 약초의 본고장 이미지 강화

○ 제3회『류의태·허준賞』시상은 본 축제의 상징적인 하이라이트였으며, 현재 조성중에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에서 개최한 신의 류의태 선생과 의성 허준 선생의 추모제를 금년부터 분리 개최하는 등 한방약초의 본고장으로서 위상을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음.

3. 한방약초전시관을 한방약초체험관으로 개선 발전

○ 축제의 핵심 분야인 한방약초전시관을 지난해와는 달리 테마가 있는 한방약초체험관으로 개선하여 한방 오장체험관 코너에서는 장기별로 유익한 약초화분, 약초술, 건재표본을 구분 전시하고, 한방약초생태관 코너에서는 약초 분경, 수생•허브식물, 산청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를 전시하고 인체해부도 모형과 해부 동굴도 체험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주제단위로 집중시킬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 체험관의 규모 확장 및 동선을 변경하여 관람객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체험관내에 휴게실을 설치 산청관광 영상물 상영과 몸에 좋은 한방약차를 무료 시음토록 하여 관람객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음.

4. 학술대회

○ 금년에 준공된 산청문화예술회관에서 '고부가 생약재 생산 및 가공기술의 최신동향'이란 주제로 개최한 약초산업발전 심포지엄은 학계 인사와 약초 재배 농가들로 하여금 약초에 대한 연구와 재배 약용작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기술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조성하였음.

5. 약초・한약재 판매

○ 약초・한약재 판매장터를 운영하여 산청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만을 판매하여 지리산 약초의 효능을 실제로 느끼도록 하는 한편 국산과 외국산 한약재의 비교전시를 통하여 약초에 관한 상식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음.

6. 다양한 체험 및 참여・전시 프로그램 운영

○ 한방향토음식잔칫집에서는 기존의 한방향토음식 전시와 연계하여 매일 1회 전시 음식에 대한 조리과정을 시연 및 시식하고, 한방 약차와 탕제류, 한방 요구르트, 한방 약초 칵테일, 천왕이 한우, 천왕이 포크 돼지고기 시식 등 불때고, 끓이고, 김이 나는 생생한 현장 재현으로 축제 분위기 고조에 기여 하였으며,

○ 경남한의사회, 진주한일한방병원, 본디올한의원 등에서 공동 참여하여 운영한 산음혜민서에는 무료 한방진료와 사상체질 검사를 받기 위해 하루 종일 관람객들이 줄을 지어 대기하는 등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 황토 원적외선, 약쑥 뜸, 봉침, 체질량 검사 등 건강 체험 프로그램은 부모님에게, 약초 압화체험, 목화 목판화체험, 도자기 빚기체험, 한지 공예품 만들기 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은 어린이에게 큰 호응을 얻는 등 행사장을 찾은 모든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 또한 산청자생 약초사진 및 한국약용식물 생태사진, 한의학 관련 유물, 약초 그림, 산청관광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행사도 풍성하여 관람객이 축제 행사장에 오랜 시간동안 머물게 하므로서 축제를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음.

7. 축제 상징 광장 조성

○ 매년 행사장 정문 앞 광장에 잡상인들로 인한 혼잡을 차단하고 행사장 입구부터 한방 약초의 향기에 물씬 취하도록 지리산을 거쳐(지리산 모형 동산 조성) 류의태 약수를 마신 다음 산음골을 통과(옛 고을입구 재현) 산음한약방(옛날 전통한약방 재현)으로 이어지는 축제 상징광장은 관람객의 사진촬영 장소로 큰 인기가 있었으며,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음.

8. 개막식 및 군민화합 한마당잔치

○ 금년도 개막식 및 식전·후 공개행사는 경남예총과 공동주관으로 개최 '제13회 경남예술한마당큰잔치가' 열려 일만여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수준높고 격조높은 개막식과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행사기간 중 매일 밤 군민 위안행사로 실버노래자랑, 가족장기자랑, 한방약초가요제 등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행사장을 찾아오게 함으로써 축제 행사를 통해 군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토록 하였음.

9. 행사장 진입도로 무분별한 외지인 식당 집합 수용

○ 지난 행사시 행사장 진입도로 좌·우에 외지인 식당과 잡상인이 점유하고 있어 관람객의 인상을 흐리게 만들고 혼잡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금년 축제의 개선 목표로 설정하여 헬기장으로 집합 수용함으로써 상인들로부터는 불만을 초래하였으나 행사장의 배치나 운영면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이 되었다는 평가임.

10. 한방향토 음식점의 특색화 유도

○ 한방향토 음식점의 특색화를 금년 축제의 개선 목표로 설정하여 일반 음

식과의 차별화를 위해 한약재 사용 가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참가업소를 선정하고 플래카드(대표메뉴 크게, 상호는 작게), 가격표지판 등 전 업소 규격화를 유도 약초골 산청의 자긍심을 가지고 한방향토음식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한방음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한방음식의 개발과 한약재 소비가 증가하도록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11. 연계행사 개최 효과

○ 황매산 철쭉제는 날씨관계로 부분적으로 축소 운영되었지만 한방약초축제와 연계한 행사로 우리 군의 관광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성과를 거양하였고

○ 지리산 산청차 시연회는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여한 가운데 다례 시연, 다구 전시, 차밭 답사 등 다양한 행사로 지리산 산청차의 품질과 효능을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하였음.

12. 유관 기관・단체의 적극 지원

○ 특히 이번 축제는 유관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사지원 담당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행사를 무난히 진행할 수 있었으며, 경호강변에 마련한 대형 주차장과 행사장 입구에 설치한 임시 주차장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13. 향후 추진과제

○ 앞으로는 국내외에 홍보를 다양화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 및 보완하여 한층 더 발전된 아이템과 독창성을 가지고 관람객의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축제 참여를 확대하고

○ 약초기반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조기 육성 및 약초 관련 상품, 한방향토음식 개발 등 한방약초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부가가치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주요 행사내용

○ 개막 및 제전행사

- 개막식(식전·식후 공개행사)
- 외빈 초청 만찬
- 류의태·허준 선생 헌공다례
- 제3회『류의태·허준賞』시상
- 류의태·허준 선생 추모제

○ 심포지엄 : 약초산업발전 심포지엄

○ 지리산 한방약초 체험관 운영

- 한방 오장 체험관 : 부위별 약초 화분, 건재표본, 약초술 전시
- 약초생태관 : 약초화분, 수생·허브식물, 약초 분경
- 인체 해부도 모형 체험, 인체 해부동굴 체험, 산청의 물고기 체험
- 웰빙 약초체험 휴게실 : 산청관광 등 영상물 상영

○ 체험 및 참여행사

- 지리산 한방 향토음식 체험
  - 한방 향토음식 잔치집 체험
  - 한방 약초 칵테일 체험
  - 류의태 약수 체험
  - 천왕이 포크 돼지고기 체험
  - 지리산 한방탕 및 약차 체험
  - 한방 요구르트 체험
  - 천왕이 한우 체험
- 산음 혜민서 진료 체험

◦ 한방 무료진료 ◦ 본디올 형상 무료진료
◦ 사상체질 검사 ◦ 한방약 처방

● 한의학 및 건강 체험
◦ 어의 의녀복 입고 사진 찍기 ◦ 봉침 무료체험
◦ 약쑥 뜸 무료체험 ◦ 운월 황토손 무료체험
◦ 체질량 측정 및 건강상담 ◦ 산음 한방 탕제원 운영
◦ 한방 토종 건강원 운영 ◦ 약초·목화씨앗 무료 배부
◦ 건강 소망 기 달기 ◦ 한약재 썰기 시연
◦ 산음한약방 재현

● 기타 체험 및 참여
◦ 목화 목판화 체험 ◦ 손 끝에 묻어나는 야생초 체험
◦ 지리산 약초 압화공예 체험 ◦ 도자기 생활옹기 빚기 체험
◦ 한지 공예품 만들기 체험 ◦ 산음 민속놀이 체험
◦ 캐릭터 운영 ◦ 페이스 페인팅
◦ 연예인 초청 팬 사인회 ◦ 키다리 삐에로 요술풍선 나눠주기

○ 산음골 장터 운영
● 약초·한약재 판매 ● 농·특산물 판매
● 한방 향토음식 판매 ● 한약재 비교 체험

○ 군민화합 한마당 잔치
● 중국 하북성기예단 공연 평양 음악무용단 공연
● 양산윈드오케스트라·뮤지까모레중창단 초청 공연
● 진주색소폰클럽 초청 연주 ● 찾아가는 국악원 공연
● 장승배기 공연 ● 금송아지 공연
● 가족 장기자랑 ● 실버 노래자랑

- 한방약초 가요제
- 청소년 어울마당
- 영화상영

○ **경연행사**

- 한방 약초 웰빙요리 대회
- 한방약초 OX퀴즈대회
- 약초 그리기대회
- 어린이 동요대회
- 농악놀이 경연

○ **전시행사**

- 산청 자생약초사진 전시회
- 한국약용식물 생태사진 전시회
- 한의학 관련 유물 전시회
- 약초 그림 전시회
- 산청 관광사진 전시회

○ **자치단체 홍보관 운영**

- 한국생약협회 우수한약재 전시관
- 자매결연 자치단체 홍보전시관

○ **연계행사**

- 제24회 황매산 철쭉제
- 지리산 산청차 시연회
- 제13회 경남예술한마당 큰잔치
- 제2회 어린이날기념 한마당잔치
- 산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 제14회 산청군협회장배 지리산한방약초축제기념 경남테니스대회

관람객수 **676천명 (2005년 650천명)**

판매현황 **474백만원 (2005년 607백만원)**

○ 약 초 : 28개소 185백만원

○ 농·특산물 : 36개소 135백만원

○ 한방향토음식 : 18개소 154백만원

※ 관광객 소비 승수효과 : 최저 202억원, 최고 284억원

•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금액 : 12,000원×676천명×최저2.5 ~ 최고3.5

= 최저 202억원 ~ 최고 284억

성과 및 기대효과

○ 군의회, 각급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었음.

○ 중앙 및 지역 신문사와 MBC라디오 전국 방송사의 사전보도, 축제 TV 방영 및 신문 보도를 통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된 특색 있는 축제로 호평

○ 한방과 약초의 본고장 및 청정관광 이미지 구축

○ 축제 이후 약초판매 구매 증가와 약초재배 분위기 확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문화관광부 지정 유망축제 진입을 위한 군민의 확고한 의지 결집

향후 개선방향 및 반영 검토사항

○ 문화관광부 대표축제 진입을 위한 군민 의지 결집

○ 축제 개최시기 및 축제 명칭변경

○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방안 강구

○ 각종 행사경비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 예산 편성

○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 다양한 체험행사 및 축제상품 개발

○ 외국인 및 외부 관광객의 적극 유치

○ 체험 및 판매부스 규모 및 일부 행사 조정

○ 한약재 및 농·특산물 판매물량 확보 및 다양화

부 록 2.

한방사이버박물관구축 내용

「군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이버 약초골 산청'」[4]

1. 추진배경

○ 산청군은 유구한 역사·문화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면적 중 임야가 79%를 차지하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약효가 뛰어난 우수한 품질의 약초를 생산할 수 있는 지리산을 비롯한 웅석봉, 왕산, 황매산 등 우수한 산악형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약초 재배의 최적지이다.

○ 神醫 류의태, 醫聖 허준 선생이 활동한 동의보감의 본고장으로서 그 명성이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새천년 한방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허준의 맥을 잇는 전통한의학과 관광·휴양기능을 포함하는 한방산업 특화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역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산청군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 여기에 힘입어 지리산 한방·약초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4] 신활력사업의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산청군 자체에서 정리한 자료임.

하여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한방·약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지정 등 한방·약초산업의 메카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리산 한방·약초 사이버 박물관』을 구축하게 되었다.

○ 아울러 사이버 박물관 구축은 약초 재배법, 산청의 약초 작목반 소개, 산청에서 직접 개발한 약선 요리를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약초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제공으로 정보교류의 장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기본방향 및 사업개요

○ '생약의 본향, 한의학의 본고장' 산청 한방약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청고유의 전통과 멋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특성을 살려 약초의 寶庫인 산청을 한방산업 메카로서 이미지 제고함은 물론 산청군의 우수한 한방약초 산업을 온라인을 통하여 전국에 알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 한방·약초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약초전문가, 약사, 한의사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특별자문위원 7명과 산청군 관련부서 9개 담당, 산청군의 약초작목반 296명이 총동원 되어 DB 자료를 구축하였다.

○ 한방·약초 부문은 경상남도 약초시험장 김만배 박사, 경남생약연구소 성환길 소장, 마산대학 곽준수 교수, 경남 한의사협회 이병직 한의사로부터 조언을 구했으며 약초체험지 부문은 경남생약협동조합 김승주 조합장으로부터, 한방약초 검수 부문은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안덕균 박사, 약초시험장 김만배 박사에게 많은 도움과 협조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컨설팅 및 사업 완료 홍보에 관한 아이디어는 한국녹색문

화 디지털 연구소 이수근 소장이 참여했다.

○ 산청군의 약초작목반은 총 24개로 회원 296명이 활동하고 있다. 산청읍의 작목반은 호산장뇌삼작목반 외 4개의 작목반으로 회원수 41명이 있으며 주로 산초나무, 음나무, 장뇌삼 등을 재배하고 있다. 기타 10개의 면에서도 지리오가피, 홍화, 작약, 두충 등 다양한 약초를 재배하고 있으며 약초골 산청을 만들기 위하여 군민 및 작목반, 기관이 심혈을 기울여 사이버 박물관을 구축하였으며

○ 또한 기존 한방사이트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먼저 타 지역의 사이트를 분석 및 벤치마킹함으로서 우리만의 특색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부도 1. 『지리산 한방·약초 사이버 박물관』 메인 화면

○ 본 사업의 공식명칭은 『지리산 한방·약초 사이버 박물관』으로 2005년 12월말부터 시작하여 9개월에 걸쳐 2006년 9월까지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76백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지리산 한방·약초 사이버 박물관』은 크게 전통의학, 지리산약초, 함께 나눠요, 약초골 여행 네 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 첫 번째로 '전통의학' 메뉴에서는 '왜 산청이 한방·약초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가?', 산청군이 한방약초산업특구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래픽을 활용하여 쉽게 표현하였으며 '전통의학'에서는 일반적인 전통의학 지식 및 전통유물, 한의학 명의, 한의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전통유물 및 한의서는 현재 산청군 금서면 특리에 설립중인 산청한의학박물관에 소장될 유물을 활용하였다.

○ 두 번째는 '지리산약초' 메뉴이다. 현재 학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지리산약초는 동물성, 광물성 등을 모두 포함하여 1,000여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산청군에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거나 요즘 각광 받고 있는 약초를 우선 선정하여 200여가지를 DB로 구축하였다. 구축되어 있는 지리산약초는 색인별, 효능별, 약재로 쓰이는 부위별로 그룹화 하였으며 산청군의 11개 읍·면을 지리산권(시천면, 삼장면), 웅석봉권(산청읍, 단성면), 집현산권(신안면, 생비량면), 황매산권(차황면, 오부면, 신등면), 왕산권(금서면, 생초면)로 분류하여 그 지역에 생산되거나 자생하는 약초를 묶어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사이버박물관을 구축하면서 역점을 두었던 여러 부분 중의 하나로 약초 정보 제공이었다. 약초는 전문가부터 약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까지 두루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약명, 개화기, 약재로 쓰이는 부위를 비롯하여 일반 약초도감을 총망라하게 정보를 제공하

였으며 약초 사진은 기본적으로 전체사진, 개화기, 잎, 줄기, 건약재 사진 등 최소 기본 5장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 사이버박물관의 또 다른 포인트는 '사이버 약초 장터'이다. 여기에서는 작목인 296명의 도움으로 산청의 약초작목반 24개를 가상의 약초 장터와 같이 표현하였다. 각 작목반의 미니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링크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쉽게 해당 작목반이 재배하고 있는 약초의 종류, 양, 작목반의 규모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후 쇼핑몰과 연계하여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할 예정으로 이것은 약초 생산 농가의 소득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도 2. 약초를 확대보기 했을 때 화면

< 전체 이미지 >

< 개화기 >

< 잎 >

< 줄기 >

< 건약재 >

○ 건강과 한방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사상체질을 테스트하여 그 체질별로 이로운 음식, 몸에 좋은 한약재를 소개하고 있어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또한 산청군에서 직접 개발한 한방·약초를 이용한 약선요리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사용자들이 집에서도 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 번째는 '함께나눠요' 메뉴로 사용자, 약초 생산자, 전문가 등이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방·약초칼럼, 약초재배·가공법 Q&A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월별 약초 달력 및 건강체조 따라하기 등 사용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부도 3. 사이버 약초 장터

○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약초골 산청 여행'으로 약초골 고장 산청을 홍보하여 사용자가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산청의 대표 축제인 지리산한방약초축제, 고로쇠축제, 메뚜기쌀 축제 등 다양한 축제 행사를 소개함으로써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싶도록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관내의 약초를 이용한 약선요리 음식점으로 홍화와 구기자 우린 물로 만든 약고추장을 이용한 비빔밥, 두충을 이용한 두충흑돼지갈비 등 사용자가 산청에 와서 직접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을 소개하였으며 돌아갈 때에는 산청의 약초특산품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 등 다양한 계층이 약초를 체험할 수 있는 약초체험지를 소개함으로써 누구나 약초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3. 기대효과

○ 사이버박물관의 구축으로 청정지역 지리산 한방·약초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여 전통의학의 본고장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약초생산자 및 사용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하여 정보교류의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사이버약초장터, 약선요리 음식점, 약초특산품을 홍보함으로써 주민소득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된다.

4. 향후 추진계획

○ 2006년 11월경 사이트 오픈을 시초로 지리산 자생약초를 년차별로 추가하여 산청군의 약초뿐만 아니라 지리산 전역의 모든 약초를 DB화함으로서 지리산 한방·약초 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며,

○ 한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성을 위한 배려로 개설된 약선요리 동영상

을 점진적으로 추가하여 웰빙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약선요리를 맛볼 수 있게 할 것이다.

○ 사이버박물관의 1차 사업은 사이트 구축에 그 목적이 있었다면 2차 사업에서는 쇼핑몰 부분을 보다 강조하여 실제 약초 생산 농가와 구매자간에 사이트를 통한 직거래가 가능토록 하여 전국 어디서나 산청군의 우수한 약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소득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구자인. “신활력사업의 추진현황과 개선과제.”「계간 농정연구」. 2006 여름호. 통권 18호. pp.167-185.

국가균형발전위원회・행정자치부.「신활력사업 패밀리닥터 운영방안」. 2005.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림부.「신활력사업 추진현황 보고」. 2006. 9. 22.

김병률. “보은군 황토 명품화사업 FD 활동사례.”「신활력사업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8. 10. pp.30-45.

김창길. “영양군 춤건강고장 영양브랜드화사업 FD활동 사례.”「신활력사업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8. 10. pp.49-68.

김홍상. “산청군 친환경한방・약초산업육성사업사례: 평가와 과제”「신활력사업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8. 10. pp.69-88.

모성은. “패밀리닥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신활력사업 패밀리닥터(FD)・담당공무원 합동 워크숍 자료」(2006.1.19-20). 행정자치부. 2006.

산청군.「신활력사업계획」. 2005.

산청군.「신활력사업 추진계획 (한방・약초산업육성사업)」. 2006.

송미령 외 5인.「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 R5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정명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신활력사업의 발전 방향.”「신활력사업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8. 10. pp.3-25.

행정자치부.「신활력사업 패밀리닥터 운영방안」. 2005. 5.

C2006-16-3 / 2006. 10

산청군 신활력사업 전담자문 종합보고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6. 10.
발 행 2006. 10.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 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 e-mail: dongyp@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